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과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의 변동*

박 승 관 · 서울대학교

본 논문은 한국 사회의 압축적 근대화 과정이 한국의 기초적 커뮤니케이션 질서에 어떠한 왜곡과 질적 변모를 가져왔는가 하는 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일상적 생활세계의 중추적 영역이라 말할 수 있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에서 발견되고 있는 구조화된 특징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첫째, '근대'는 자유롭고 열린 비판합리적 토론에 기초하여 실존적 개인의 탄생과 속의 민주주의의 성립을 돕는 하나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질서의 구축과정이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둘째,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 속에 정착, 구조화되어 나타나는 (1) 실존 커뮤니케이션의 왜곡, 즉 병리적 커뮤니케이션의 만연, 그리고 (2) 속의 민주주의 기반의 약화, 즉 '커뮤니케이션 제3영역'의 범람, 다이얼렉틱(dialectic)과 로고스(logos)의 죽음을 논의한다.

I. 문제의 제기

1945년 광복 이후 한국 사회가 반세기 동안 겪어 온 변동과 발전은 문자 그대로 격동적인 것이었다. 한국 사회가 그 동안 경험한 격동적 변동의 역사는 한 마디로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모형으로 하는 "압축적 성장"(condensed growth)의 과정으로 정리될 수 있다(박승관 1993, 1996). 한국 사회가 그 동안 이룩해 온 고도의 압축

*이 논문은 1996~1999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인문·사회과학분야 중점영역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적 성장은 본질적으로는 양면적이며 이중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한국 사회의 이러한 고밀도의 압축적 성장 과정은 분명 '성공' 과 '건설'의 기록이기도 하였지만, 이와 동시에 '파괴'와 '사회경제적 모순 심화'의 역사이기도 하였다.

첫째, 민족적 차원에서 한국은 그 동안 국제적 냉전체제의 틀 안에 편입되어 민족 분단체제를 극복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민족전쟁의 유산과 상처로부터 온전히 치유되지 못하였다. 한반도를 그 동안 지배해 온 냉전·분단체제는 결과적으로 분단 당사자인 남북한 '사이' 뿐만 아니라 남한 '내부'에도 극단화된 상호불신, 적대적 대립, 분열적 갈등의 질서를 이식하고 구조화시켜 왔다. 둘째, 정치 부문에서 한국은 그 동안의 급속한 근대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합헌적이고 정통성 있는 민주적 정치 지배체제의 수립과 공고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국의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경제성장이 국가정책의 최고 목표로 설정되면서, 그 밖의 여러 다른 가치들, 특히 민주주의적 가치들은 장식물 또는 사치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Im 1987; O'Donnell 1973, 1988). 이로 인하여 민주적 절차와 과정의 합리성,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도구적 합리성에 복속되는 상황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일반화되고 정당화되었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도 급속한 외형적 성장의 이면에서 왜곡과 기형화가 심화되었다. 경제 성장과 산업화가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의 후견 하에 추진되면서 경제적 축적의 배분은 재벌과 소수의 특권 계층에게 집중되는 한편 민중 부문은 상대적으로 이로부터 소외되었다. 정치권력과의 유착 풍토가 정착하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었다(임종철 등, 1994). 넷째, 사회적 차원에서 한국 사회의 근대화와 더불어 급속한 '탈전통화'(detraditionalization, Heelas, Lash & Morris 1996)가 진행되었다. 전통적 가치, 규범, 권위가 파괴되고 그 구속력이 약화되었으며, 사회 체계 내부에 외래적이며 이질적인 가치와 행위 양식들이 근대성의 외피를 입고 새로이 이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탈전통화 과정이 사회문화체제의 질적 도약을 통한 참된 근대화를 낳았던 것도 아니었다. 전통의 해체가 근대성의 정착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 '전통성과 근대성의 왜곡된 접합'을 유발함으로써 한국 사회는 기형적이며 이중적인 사회로 재조직되고 있다는 비판적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은 이처럼 이중적이며 모순적인 성격을 띠면서 전개되어 왔다(박승관·장경섭, 2001 참조). 이러한 상황은 한국 사회체계 내부에 일련의 특수한 '사회적 조직원리,' 즉 사회성원들 사이의 행위일반을 규제하는 일종의

공유된 규범적 질서를 사회 내부에 제도화시키는 힘을 발휘하였다.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같은 특징적인 사회적 조직원리로 부각되고 있는 것들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물질주의'로서, 한국인들은 근대화 과정을 경유하면서 물질적 가치, 즉 '돈'을 물질외적 가치, 특히 정신적, 도덕적 가치보다 중시하고 숭상하게 되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결국 '돈'이 최고라는 인식, 그리고 한 인간의 성공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돈 이외의 비물질적 가치들을 인정하지 않는 풍조가 사회 전체에 널리 확산되어 있다. 둘째, '불신주의'이다. 근대화 과정을 경유하면서 사회 성원들 사이의 공존과 신뢰, 존중과 포용의 정신이 파괴되고, 사회 성원들이 서로를 협동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적대시하는 상황이 일반화되었다. 셋째, '개체주의'이다. 근대화 과정이 유발시킨 사회 성원들 사이의 상호 경쟁의식의 심화와 불신주의의 심화는 '나'와 '가족' 이외에는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 개인중심주의 또는 가족주의를 심화시켰다. 공동체 중심적 가치관이 붕괴되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의식이 일반화되면서 '공동체적 합리성' 보다는 '개체적 합리성'을 우선시하는 이기적 사회풍조가 널리 확산되었다.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된 이러한 사회적 조직 원리들은 오늘날 한국인들의 일상적 생활세계 속에 깊숙이 내면화되면서 그들의 가치체계와 개인적, 집단적 행위양식을 지배하는 규범적 구속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들 사회적 조직 원리들은 사회성원 자신들의 신념과 행동을 규율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타인들의 신념과 행동을 기대하고 예측하는 표준으로 적용되면서 전체 사회성원들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공유되면서, 한국사회의 '지배적 현실' (paramount reality)로 자리 잡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은 한 사회의 구성과 작동방식을 결정하는 기초적 사회과정이며 토대로서, 사회의 구성과 질서와 변동 과정의 근원에 내재하는 중추적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전통사회의 변화와 근대사회의 형성, 그리고 탈근대 사회로의 이행 경로는 반드시 당시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체계 또는 질서와 관련하여 탐구되고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겪어 온 근대화 과정에 관한 이론화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심층적 커뮤니케이션 질서에 대한 전면적 탐색이 긴요하게 요청된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학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거론한 한국 사회의 주요 사회적 조직 원리들이 우리 사회의 기초적 커뮤니케이션 질서, 특히 일상적 생활세계의 중추적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에서 발견되고 있는 구조화된 특징들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의 마련과 이론적 체계화를 추구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한국 사회의 지난 반세기 동안의 근대화 과정이 한국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에 어떠한 질적 변모와 왜곡을 가져왔는가 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첫째로 '근대'라 하는 하나의 역사적 현상은 결국 다른 아닌 자유롭고 열린 비판 합리적 토론이라 하는 하나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질서의 구축 과정과 긴밀하고도 본질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한편,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구조화된 한국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의 왜곡에 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II. 커뮤니케이션과 근대: 실존, 속의, 민주주의

'근대'라 하는 하나의 역사적, 문명사적 프로젝트와 '커뮤니케이션'이 가지는 본질적 연관성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만 하나의 주체적, 독립적 인격체로서의 '개인'을 형성시키고, 다시금 이들 독립적 개인들을 상호 고립이 아니라 상호 교류의 열린 장으로 안내할 수 있는 가교를 개설함으로써, '개인'을 '사회'로 재통합시키며, 그 결과 궁극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민주 공동체'의 건설을 기대할 수 있다는 데에 놓여 있다. 다시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의 실존과 속의,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합리적 개인과 민주적 사회를 부양하고 출산하는 원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근대의 성립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1. 커뮤니케이션과 인간 실존

첫째로, 커뮤니케이션은 주체적 개인의 실존적 정체성 확보를 위한 절대불가결의 요인으로 파악될 수 있다. Jaspers(1970, 56)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으로 들어

가지 않고서는 자아에로 나아갈 수 없고, 고독해지지 않고서는 커뮤니케이션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에 의하면(1970, 56), ‘실존 커뮤니케이션’ (existential communication)은 개인들이 서로 만나되, 만나는 그들이 만남에 매몰되지 않고 각각 주체적으로 독립적 개인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존 커뮤니케이션은 주체적 개인들의 ‘독립’ (independence)과 ‘비고립’ (unisolation)의 동시적 실현 가능성에 달려 있다. 만일 ‘내’가 독립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나는 ‘남’에게 완전히 복속되어 소멸해 버릴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록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더라도 ‘나’는 공허해지고 만다. 반대로 타인으로부터 철저히 ‘나’를 고립시켜 버리면 커뮤니케이션은 소멸하고 ‘나’ 역시도 궁핍화의 길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극단적 상황 속에서는 결코 참된 실존 커뮤니케이션은 실현될 수 없다.

결국 Jaspers(1970, 1997)적 의미의 실존 커뮤니케이션이 구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고독’과 ‘연대’가 동시적으로 요청된다. 그러나 이 경우의 ‘고독’ (solitude)은 ‘고립’ (isolation)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고독’은 타인들과의 근본적 단절을 의미하는 ‘고립’과는 달리 언제나 가능한 실존의 실현을 목표로 다른 주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기대하며 열려 있고 준비되어 있는 존재상태이다. 실존 커뮤니케이션은 결국 자기 자신으로 남아 있으면서도 밖으로는 타인들의 세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성과 개방성을 전제로 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다. Jaspers의 논의는 오직 참된 실존적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할 때만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의 탄생이 가능하며, 이들 개인들의 재결합을 통한 합리적 ‘사회’와 공동체의 건설도 가능해 질 수 있다는 철학적 성찰을 함축하고 있다.

Mill(1859/1975)이 주장한 근대적 ‘개인’ 또한 ‘인간 정신의 도덕적 용기’ (p.33)로 무장함으로써 ‘의견의 전제(專制)’ (the tyranny of opinion, p. 63)와 ‘관습의 압제’ (the despotism of custom, p. 66)에 대항하는 한편, 자신의 의견을 자발적으로 형성하고 이러한 독립적 의견에 기초하여 행동해야 할 책무를 지게 되었다. 근대적 개인의 성찰적 주체성은 타인의 의견을 반추하고 비교, 비판함으로써 자기 자신만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의견의 형성을 추진할 수 있는 지적 능력으로 무장된 실존적 자유인으로 정의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Lerner(1958, 50-51, 96-99)는 ‘근대성’ (modernity)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사람들이 자신의 사적 생활과 직접적이며 즉각적인 관련을

맺고 있지 아니한 원격적인 공적 사안들에 관하여 자신들의 주체적 의견을 형성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된 데에서 찾았다. Inkeles(1973/1999), 그리고 Inkeles와 Smith(1974)도 '의견의 성장' (the growth of opinion), 즉 다양한 공적 사안들에 관하여 주체적 의견을 형성하고, 이를 유지, 표현하고자 하는 성향을 근대적 인간이 가지는 핵심적 심리 특성 또는 자질로 꼽았다.

결론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은 곧 체계적 '의견 형성' 과정을 촉발하고 가속화시킴으로써 실존적이며 주체적인 '개인'의 탄생을 매개하는 전제조건이자 그 과정이며 또한 그 결과이기도 하다고 말할 수 있다.

2. 커뮤니케이션, 숙의, 민주주의

참된 커뮤니케이션은 독립적이며 다원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들 사이의 양방향적이며 열린 상호교류를 촉진시킴으로써 '숙의' (deliberation)를 촉진시키고, 그럼으로써 종합적 '대우주'의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숙의' (deliberation)는 다름 아닌 공적 쟁점에 관한 시민들의 자유롭고 열린 토론 과정이다(박승관 2000; Bohman 1996; Dryzek 1990).

Kant(1781/1997, 1784/1996)는 계몽과 진보에 대한 인간 이성의 기여는 자유로운 '공적 토론', 즉 하나의 양방향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서의 '숙의'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간주하였다. 그는 개인성의 계발도 공적 토론에 의하여 실현되고 가속화될 것으로 믿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그의 계몽 개념은 인간 이성을 보편적 기준에 근거하여 인간성 자체의 진보를 달성하기 위한 끊임없는 '숙의'의 과정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Mill(1859/1975, 21) 역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형성함으로써 '개인성'을 계발해 나가는 근대의 프로젝트는 연속적인 '토론' (discussion) 과정, 즉 '숙의'에 의존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근대적 개인은 "자신의 실수를 토론과 경험을 통하여 교정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경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반드시 토론이 있어야 한다(There must be discussion, p. 21)고 주장함으로써 심층적 '숙의'가 가지는 중요성을 철저하게 강조하였다. Mill은 근대적 개인이 자기 자신의 오류 가능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개방적 성찰성, 즉 '교정 가능성' (corrigibility)은 끊임없이 전개되는 '열린 토론' 즉 '숙의'의 존립 여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보았

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열린 토론'에서도 "한 인간이 어떤 주제 전반에 대하여 철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능한 모든 다양한 의견이 주장하는 바를 들음으로써만 확보될 수 있다" (p. 21)고 설명함으로써 양방향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숙의'의 중요성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Inkeles(1973/1999) 및 Inkeles와 Smith(1974)가 그리고 있는 '근대적 인간 모형'(A Model of the Modern Man)도 '개인성' 차원과 더불어 '시민성' 차원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근대적 인간형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도의 '의견화'(opinionation)로 특징지어지는 주체적 인간형이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사회적 의견 체계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민주적 정향성을 보임으로써 "주변의 태도와 의견 분포의 다양성에 대하여 예민한 지각력"(p. 98)을 보유하는 개방적 인간형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근대적 인간형은 적극적으로 "의견상의 차이를 인정"하고 "의견의 편차에 대하여 긍정적 가치를 부여할"(p. 98) 수 있는 정신적 개방성을 보유하고 있는 존재, 즉, 권위적 폐쇄를 거부하고 그의 사유 과정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일련의 시민적 성격특성을 소유하는 존재로 기술되고 있다.

숙의 민주주의의 본질에 관한 최근의 논의들도 근대적 인간이 계발할 수 있고 또한 계발하여야만 할 개방적 시민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고전적 견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가령, Bohman(1996, 27) 또한 숙의를 "쟁론적 논술 행위 과정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 협력 활동에 가깝다"고 서술하고 있다. 공적 숙의에 부여된 궁극적 사명은 다원적 사회 속에서 인간의 잠재적 갈등 해결 역량을 무한대로 활성화시킴으로써 살아있는 인간 공동체를 건설해내는 데 있다.

다양하고 대립적인 의견들 사이의 공동체적 상호 교류의 커뮤니케이션 공간, 즉 '숙의'의 마당에 대한 이론적 관심은 '공적 영역'(the public sphere)에 관한 논의로 정교화 되었다.

Arendt(1958, 52-58)에 따르면 공적 영역(the public realm)은 상이한 관점들과 무수한 입장들의 공존에 의하여 다원적 시민성이 실현됨으로써 인간 모두가 "더불어 하나 되기"(human togetherness)를 실현할 수 있는 공동의 세계이다. 공적 영역은 그 내부에 복합적 의미체계의 공존을 실현시킴으로써 하나의 "전체의 회동을 위한 공동의 마당"(the common meeting ground of all, p. 57)을 제공한다. 이 공동의 마당 안에서 각각의 의견 주체들은 서로 보고(seeing), 들으며(hearing), 또한 타인들에 의하여 보여지며(being seen), 들려진다(being heard). 즉, 인간들은 그 안에서 '더불어

어 행동하며' (acting together), '더불어 말한다' (speaking together).

Habermas(1962/1989, 1981/1984, 1996/1998) 역시 '공적 영역' (the public sphere) 을 '비판 합리적 공적 토론' (rational-critical public debate, 1962/1989, p. 28), 즉 '숙 의'의 공간으로 파악하였다. 그의 근대적 공공 영역은 "사적 인간들이 모여 공중 으로 하나 되기" (p. 27)가 실현되는 영역으로서, 곧 사적 개인들을 공중으로 전환 시키는 숙의의 공간과 다르지 않다. 이 숙의의 공간 안에서 개인들은 자신들의 이 기적 이익을 위한 '도구적 합리성'을 극복하고, 상호 조정과 이해를 추구하는 '커 뮤니케이션 합리성'을 지향하면서 공동체적 관심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인간들은 효과적인 양방향적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실현시킬 수 있을 때에만 근대 적 의미의 공동체적 숙의의 영역을 창조할 수 있으며, 그 영역 안에서 자신들의 관 심을 보편적 차원의 공동체적 이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커뮤니케이션 개념은 근대적 민주주의의 이념과도 잘 부합된 다. 민주주의에 대한 근대적 신념은 '사상의 자유 공개시장' (the free marketplace of ideas) 개념과 그 발생과정에서부터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 왔다. 사상의 자유 공개 시장은 그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공개적으로 표명되고 자유롭게 경합하며, 나아 가 궁극적으로는 진실되고 합리적인 공중의 집합적 일반의지를 형성하는 데에서 정점을 이루는 공동체적 커뮤니케이션 마당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Milton 1644/ 1992).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파악하면 다양한 대립적 의견 소유 주체 사이의 열린 상호 교류를 통한 합리적 여론의 형성이야말로 건강한 민주주의 확보의 필수 적 전제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근대적 민주주의의 실현 여부는 바로 서로 경합하 는 견해들 사이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토론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가에 결정적 으로 의존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그 역사적 기원에서부터 공적 사안에 관한 시민들의 자유롭고 능동 적인 '토론' 즉 '숙의'에 의존하는 정치체제로 인식되었다. Dewey(1927, 1958)는 커뮤니케이션을 '위대한 공동체' (the Great Community)라는 사회적 이상을 구현하 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불가결한 도구로 선정하였다. 그는 위대한 공동체 는 서로 다른 집단간의 '자유롭고도 전면적인 상호 커뮤니케이션' (free and full inter-communication)이 활성화됨으로써만 구현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에 의하면 사회체계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들은 오직 진정한 의미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만 다른 집단들과 유연하고도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며,

또한 그럼으로써만 그들은 '민주적으로 조직화된 공중'으로 변형되고 성장할 수 있다. Dewey에게 커뮤니케이션은 이처럼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접착제'로서 위대한 민주주의적 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기초라고 인식되었다.

특히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이론가들은 열린 양방향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숙의가 합리적이며 고도화된 여론의 형성을 촉진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기초를 강화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Fishkin 1991, 1995; Guttman & Thompson 1996; Page 1996). 즉 숙의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공공 의제에 관한 토론 과정에 공중의 평등하고 자유롭고 열린 참여가 실현되면 그들의 의사결정 과정은 질적으로 보다 성숙될 수 있다고 본다. 공중은 숙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특정 쟁점에 관하여 광범위하고 다양한 대안적 관점들을 접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들의 합리적 추론 능력을 고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그들은 보다 정교화되고 심층화된 의견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예를 들면, Gastil & Dillard 1999; Kim, Wyatt, & Katz 1999; Wyatt, Katz, & Kim 2000; Yankelovich 1991). 결국 커뮤니케이션 개념의 본질적 의미는 바로 숙의와 민주주의의 이상과 직결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은 숙의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전제 조건이며, 나아가서는 민주주의의 과정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의 결과이기도 하다고 새길 수 있다.

III. 한국사회의 실존 커뮤니케이션

지금부터 지난 반세기 동안 추진되어 온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 특성들이 결국 한국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질서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특히 한국인들의 일상적 생활 영역의 핵심으로서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박승관, 1993, 1994, 1996)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조화시켰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다.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라 함은 일상적 생활세계(the daily life-world) 안에서 사회 성원들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구성, 건설, 유지, 발전, 변형되어 나가는 공동체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이다. 사람들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 안에서 대화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집단적 삶을 영위한다. 그것은 개인들의 동

의 (consent)와 상호이해(mutual understanding)에 기초하여 성립됨으로써 개인들의 의식과 행동에 사회성을 부여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을 고립된 개별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사회'라고 하는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조직화해 내는 의사소통의 마당이다.

근대화 과정을 경유하면서 한국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자원은 외양적, 지표적 관점에서 놀라운 수준의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는 신문과 방송을 위시한 다양한 매스 미디어들이 급속도로 보급, 확산되었으며 최근에는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의 첨단 뉴미디어와 통신 수단들이 세계 일류국가 수준으로 보급되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진정 커뮤니케이션 자원의 풍요를 구가하게 되었으며 본격적인 정보사회에로의 진입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외양적 커뮤니케이션 자원의 풍요가 과연 한국인들의 '실존 커뮤니케이션'의 질을 보다 향상시켜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즉,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러지의 풍요 속에서 과연 한국인들의 실존 커뮤니케이션은 어떠한 질적 상태에 놓여 있는가 하는 문제는, 과연 그 동안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한국 사회는 건강한 '개인'들과 소통적 '사회'를 출산하였는가 하는 질문과 관련지어 접근될 수 있다.

1. 탄생하지 않은 '개인' 과 병든 '사회'

이러한 질문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다음과 같은 한 가지 명제로 정리될 수 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한국사회에는 참된 의미에서 '개인'도 '사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 '개인'은 아직 탄생하지 않았고, '사회'는 이미 병들었다는 것이다.

한국인을 관찰하여 보면 사회적 관계의 사슬이나 전통적 인습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인격주체의 성립이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된다. 한국인은 혈연주의, 연고주의로 대표되는 각종의 집단적 사회관계망과 전통적 가치, 집단적 압력에 갇힌 '눈치의 수인(囚人)'으로 한평생을 살아간다. 그는 생리적으로는 성숙했다라도 사회적 자유도(degree of freedom)의 관점에서 보면 정신적 유아에 가깝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인들은 아직 '집단'과 '사회'의 구속에 갇힌 '개인' 아닌 '개체'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자아정체성은 일반적으로 타인 지향적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높아 보인다. 남들의 눈치가 매우 중요한 그들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사회적 통념과 집단적 요구에 예속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인들의 자아정체성은 사회 의존적이며 집단 종속적이다. 그리하여 한국인은 태어나서부터 자라고 어른이 되어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의 운명을 자기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 의하여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 친척, 어른, 이웃, 친구, 동료와 같은 주변과 집단의 간섭과 지도에 철저히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여야만 할 일과 하여서 안 될 일들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엄격한 기준들을 학습하고 여기에 종속되어 살아가도록 철저히 훈련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집단적 압력에의 순응을 거부하며 '튀는'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환대받지 못할 뿐 아니라 대부분 여러 가지 형태의 가혹한 사회적 제재에 직면하게 된다.

그 동안의 근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 아직 '개인'이 탄생하지 않은 이유는 국가나 사회로부터 독립되고 이들의 억압적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되는 '사적 영역' (the private sphere)의 형성과 발전이 부족하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은 개인 생활의 숙성을 꾀할 수 있는 자율적이면서 외적 간섭으로부터 인간의 가장 내밀한 영혼과 섬세한 감성, 그리고 독립적이고 주관적인 자기만의 생활방식을 보호받을 수 있는 은밀성의 영역이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발달하지 못했다. 한국에서 프라이버시(privacy)는 일반적으로 존중되지 않는다.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의 '사회'도 병들어 왔다. 한국 사회는 근대화 과정을 경유하면서 참된 의미의 공동체적 사회로 승격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무리'나 '집단'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 주체적 '개인'들은 '사회'를 구성할 수 있지만, '개체'들은 '사회'를 병들게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아직 구성원들 각각의 사적 영역과 개성이 철저하게 존중, 보호되면서도 동시에 개체초월적인 공동체의 이익과 관심을 매개로 하여 그들이 재조직됨으로써 상호분리와 상호관계가 동시에 실현되는 '사회'가 건설되기 이전 단계에 놓여 있다고 파악될 수 있다. 한국인들은 좁은 공간에 밀집대형을 이루며 공존하여 살아가면서도 공동체적 관심을 방기하고 오직 개체적 이익과 관심에 몰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구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주목되는 현상은 인간 집단에 자발적 공공성이 부여됨으로써 발생하는 공동체적 사회의 탄생이다. Arendt(1958, 52-53)에 따르면 이

러한 공공성이 살아 있는 사회에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마치 하나의 테이블을 가운데에 두고 둘러앉은 것처럼 조직되는데, 이 때 테이블이라는 하나의 공유된 세계는 구성원들을 서로 관계시키면서 동시에 서로 분리시킨다. 그럼으로써 하나의 공공영역으로서의 사회는 인간들을 공동체 세계로 한 곳에 불러 모으면서도 인간들을 서로 맞부딪치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즉 Arendt의 설명은 사회성원들 사이에 상호관계와 상호분리가 동시에 실현될 때 그 사회는 공적 영역이 살아 숨 쉴 수 있게 되고, 반대로 사회성원들이 상호 분리되어 있지는 않으나 철저한 무관계 속에서 조직될 때 그 사회는 공공성을 상실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한국 사회가 그 근대화 과정에서 주체적 '개인' 과 공동체적 '사회'의 출산에 실패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근대화 과정을 경유하면서 모든 종류의 전래의 전통적인 권위, 도덕, 가치들이 붕괴해 왔으며, 그 결과 과거 이들이 행사해 온 규범적 통합력이 극도로 약화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근대화 과정에서 내면화되고 제도화된 '불신주의'는 "전부 도둑놈" 또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없다"는 식으로 사회성원들 사이의 신뢰 체계를 급속히 붕괴시켰던 것이다. '어른' 과 '선생' 등이 행사하던 권위가 붕괴되었으며, '국가' 나 '사회'의 통합적 지도력이 상실되었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만연하게 된 '물질주의'에 따라 극단적으로 심화된 상호 경쟁의식 또한 사회적 신뢰와 그것에 기초한 도덕적 지도력의 붕괴를 가속화시켰다. 물질주의와 출세주의가 지배적이며 획일적 가치로 부상하면서 사회 성원들 사이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의식이 널리 확산되어 나가는 반면 공동체 지향적 '우리 의식' (we-consciousness)이 약화 일로를 걷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조직 방식 속에서 개별 사회 구성원이 거대한 인간 군집으로부터 받게 되는 사회적 압력은 과거의 전통사회에서의 경우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Tocqueville 1840/2000). 이와 동일한 조건 속에서 한국인들은 자기 자신만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사유능력과 행동유형을 개발함으로써 '개인'으로 재탄생하기보다는, 거대한 사회의 강력한 집단적 압력에 굴복하고 그 눈치를 살피는 '개체'로 전환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개체'들로 구성된 인간 집단은 바람직한 의미의 공동체적 '사회'로 탈바꿈하지 못하고 단순한 인간 개체의 물리적 군집으로서의 '집단' 또는 '무리'로 전환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2. 병리적 커뮤니케이션의 만연

이러한 조건과 상황, 곧 개인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사회는 이미 병든 현실, 개인과 사회는 탄생하지 않고 개체와 무리만 남은 한국 사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회 성원들의 실존적 커뮤니케이션은 어떠한 질곡을 겪고 있는가? 한국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는 어떠한 방식으로 구조적으로 왜곡, 퇴화, 기형화되고 있는가?

'개인'과 '사회'의 발전 수준이 취약한 채 '개체'와 '무리'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에는 각종의 분열적이고 병리적인 커뮤니케이션 행태들이 폭넓게 유포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거리나 시장 통이나 지하철에서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 없이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의 말을 끊임없이 홀로 외치거나 되뇌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분열된 자아, 좌절된 커뮤니케이션 욕구가 유발한 한국 사회의 병리적 커뮤니케이션 증후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의 말과 뜻이 타인들에게 원만하게 전달되고 이해, 수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타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즉 공동체적 고려 능력을 상실하고 이기적이며 배타적으로 살아가는 이웃의 '무리'들로부터 자신의 욕구와 의지와 개성을 체계적으로 묵살 당하기 쉬운 한국인들의 '커뮤니케이션 단절' 또는 '커뮤니케이션 실패' (communication failure)가 낳은 좌절과 실의가 이와 같은 비정상적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화병'이라는 대표적 한국병도 사실은 한국인들의 '커뮤니케이션 의지'의 굴절과 좌절이 낳은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병'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개인'과 '사회'가 소멸하고 '개체'와 '집단'만 남은 사회에서 인간들은 자기 자신의 의지와 소망이 존중, 보호되지 않고 오히려 타인들에게 묵살당하는 경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기 쉽다. 그때 인간들은 이웃과 주변이 하나의 거대한 폭력 집단으로 자기 자신에게 다가움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의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자유롭고도 평화롭게 전달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억압이 낳은 대표적 커뮤니케이션 질환이 앞에서 예로 든 상황이나 화병으로 표출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상황을 오직 극단적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일부만의 일로 치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타인들과의 관계 맺기, 즉 커뮤니케이션

에서의 실패나 부적응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을 '고스트레스 사회' 라고 부르고, 물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 지수가 낮은 것도 사실은 한국인들이 처한 '실존 커뮤니케이션의 위기'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인들의 일상적 언어생활에서 '욕설'이 고도로 발전해 온 현실도 하나의 병리적 커뮤니케이션 현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욕설의 범람은 근대화 과정에서 사회 전반에 확산된 불신주의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욕설'은 커뮤니케이션 실패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감정적으로 극단화된 표현 양식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좌절된 커뮤니케이션 의지의 왜곡된 표출의 한 가지 형태인 것이다. 또한 한국인들은 굳이 욕설이 아니더라도 평소의 언어 행동에서 외국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목소리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사회 성원들은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점점 더 큰 소리로 말하는 습관에 길들여져 온 데에서 연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믿어지고 있다. 정치인들의 유세나 연설도 일반적으로 매우 강한 어조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현상도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 사회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의 기형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한국인들의 언어 행위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또 한 가지 병리적 현상은 '부정 의문문'의 만연이다.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을 때, 한국인들은 '단순 의문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자 할 때에도, "A라는 상품이 있나요?"라고 묻기보다는 "A라는 상품 없지요?"라고 묻는 사례가 수없이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언어 관행도 근대화 과정에서 파생된 강력한 불신주의가 가져온 왜곡된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 불합리한 사회 속에서 일상적으로 거듭되는 커뮤니케이션 실패의 경험이 사회 성원들로 하여금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속에서의 타인과의 소통 방식을 이처럼 방어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만들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인들에게 공유된 고도의 불신주의는 이처럼 '불신을 전제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발달을 유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근본적 중요성을 띠는 문제는 한국 사회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

계'가 진정으로 참된 연대와 소통의 실현을 매개하는 '영혼의 멤버십'(membership in the spirit, Jaspers, 1997, 91)을 매개하고 있는가, 그럼으로써 인간 본연의 실존적 커뮤니케이션 의지를 적실하게 실현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통하여 과연 소외되고 홀어진 고독한 개체들을 '진실'과 '하나 됨'으로 재조직해내는 참된 '실존 커뮤니케이션'이 한국 사회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에서 구현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IV. 속의 민주주의 기반의 약화

근대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얻어진 커뮤니케이션 자원의 확충과 커뮤니케이션 공간의 발전은 진정한 속의와 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하여 요청되는 필요조건은 될 수 있을지언정 충분조건을 조성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커뮤니케이션 자원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가 진정한 속의와 민주주의의 공간으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원인은 그것의 '공적 영역'으로의 구조적 전환이 반드시 용이하지만은 않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 사회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의 기형화는 한국 사회의 '속의'와 '민주주의' 기반의 형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방해하고 있는가?

1. '커뮤니케이션 제3영역'의 범람

앞에서 설명한 '실존 커뮤니케이션'과 '속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관찰하면 자기지배능력(self-governance)과 개인성을 상실한 지치고 억압되고 박탈된 주체들 사이의 도피적이며 낭비적인 중독 커뮤니케이션 신드롬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깊은 뿌리를 상실한 표피적 상호매개가 만연하면서 '과잉' 또는 '잉여' 네트워킹이 발생하기도 한다.

물질주의를 앞세운 끝없는 경쟁의 일상생활 속에서 지치고, 인간의 바다 속에서 언제나 외로운 한국인들은 그러한 일상 속에서 박탈당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identity), 자기 존중감(self-esteem), 사회적 인정을 회복하기 위한 욕구에 내몰리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의지'(Kommunikationswille,

will to communicate, Jaspers 1997, 95)를 온전히 실현시킬 수 있는 '실존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능력, 즉 '고독'과 '연대'의 이중적 능력을 훈련받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들에게는 '개인'의 영역도 부족하고 '사회' 또한 따뜻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곤과 스트레스에 쫓긴 한국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개인'과 '사회'의 영역 밖에서 '제3커뮤니케이션 영역'을 창출하고 여기에 몰입하는 것이다.

직장이라는 하나의 '사회'적 공간으로부터 벗어난 한국인들은 퇴근 이후에도 가족과 같은 '개인'의 공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 어느 곳에서도 그들의 실존적 커뮤니케이션 의지는 온전히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직장에서는 상사들의 감시와 동료들과의 경쟁에 시달린다. 그러나 가정에 돌아가더라도 커뮤니케이션하기 어렵고 외로움이 극복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평균적 가정에서 행해지는 부부간 대화는 단 세 마디, "밥 먹었나? 애는? 자재이"에 불과하다는 자조적 비유가 있을 정도이다. 가족 구성원간 세대간 소통 체계 역시 단절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가정'은 '소통'의 영역이 아니라 '취침'의 공간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한국 사회가 성원들을 '개인'으로 머무르도록 허용하지도 않고, '사회'속으로 따뜻이 포용하지도 않게 되자, 한국인들은 지치고 다친 영혼을 위로받기 위한 실존적 욕구에 순응하여 '제3커뮤니케이션 공간'을 개설, 발전시키게 되었다. 최근 범람하고 있는 노래방, 술집, PC방, 전화방, 비디오방, 유흥업소 등 사회적 공간들과 각종 동창회, 친목회, 향우회와 같은 사적 모임들이 여기에 속한다. 최근 정보 사회의 총아로 대두하고 있는 PC통신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해석이 성립할 수 있다. 실존적 커뮤니케이션 의지의 충족이 원만하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고독한 군중들이 바로 정보 테크놀러지의 지원 아래 PC통신의 채팅방과 성인방에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제3커뮤니케이션 공간'은 따라서 '사회'와 '가정'이라는 양대 커뮤니케이션 사막의 경계 지대에 개설된 인공 오아시스와 같다.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다치고 지친 영혼을 달래려는 일종의 '보상적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제3공간에서 펼쳐지고 있다. 제3공간 안에서 한국인들은 목 놓아 소리 지르고 울부짖으면서, 다치고 지치고 외로운 영혼들을 서로 위무하고 위무받기 위하여 몸부림친다. 따라서 제3

의 영역은 한국 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 에너지의 분출 차원에서 볼 때 가장 활성화되고 살아 있는 공간이다. 가령, '노래방'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일상의 삶으로부터 내몰린 한국인들은 '노래방'이라는 폐쇄 공간의 보호막 속에서 목 놓아 울부짖으면서 지친 영혼을 달래며 소진된 에너지의 재충전을 기도한다. 한국의 노래방 문화는 따라서 그 본질에서 일종의 '진혼곡' 문화이며 고통스러운 현실의 망각을 지향하는 몽혼의 의식인 것이다. 노래방이라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다친 영혼들을 위무하고 상처받은 개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철저한 칸막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주목된다. 이러한 칸막이 구조는 공간 안에 존재하는 소수의 인간들과 외부의 세계를 철저하고도 조직적으로 분리시킨다. 칸막이 공간은 공간 안에 들어온 소수의 상처 입은 영혼들 사이의 동질성과 상호 유대는 극대화하면서 외부 세계의 간섭과 압력은 철저히 배제한다. 이러한 고립과 해방의 공간 안에서 직장과 가정에서 소외받고 할힘을 당한 불쌍한 영혼들이 망각과 도피의 제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제3공간은 이중적 커뮤니케이션 공간이며, 유사 공간이다. 그것은 먼저 하나의 유사 사적공간이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개인성' 영역의 외부에 존재하면서도 여전히 하나의 사적 영역으로서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영역은 하나의 유사 공동체적 영역이기도 하다. 이 영역은 사회 성원들이 각각 가족이라는 개인성의 영역을 벗어나 자발적으로 조직해 내는 '사회적' 영역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의 특성상 이 영역이 하나의 '공적 영역'으로서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영역의 커뮤니케이션적 기능도 다분히 이중적이다. 제3영역은 한편으로는 사회 성원들의 박탈되고 미충족된 커뮤니케이션 의지를 실현시키는 구원의 공간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건강한 개인성과 사회성의 부양을 통하여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잠재적 에너지를 포획하고 잠식하는 영역이라는 의미에서 파괴적 영역이기도 하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은 사회 성원들의 커뮤니케이션 욕구를 임시방편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이러한 대안적 영역으로서의 제3영역의 출현과 범람을 유발하였다는 해석이 성립할 수 있다.

제3영역의 조직 방식과 그 안에서 행해지는 커뮤니케이션 행위 양식들도 한국인들의 이러한 독특한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제3커뮤니케이션 영역의 조직 방식은 고도의 반숙의적 선택성(selectivity)을 기본

특징으로 삼고 있다. 이 영역의 참여 멤버들은 사적 친밀도를 기준으로 하여 매우 선택적으로 엄선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적 영역들의 조직 방식은 본질적으로 개방적인 것이 아니라 폐쇄적 룰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둘째, 이 영역 안에서 수행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와 내용들은 대개의 경우 대화 지향적이거나 기보다는 유희 지향적이며, 생산적이라기보다는 소비적이며, 성찰적이라기보다는 쾌락적이며, 공적이라기보다는 사적이며, 각성적이라기보다는 망각지향적인 것이다. 그 안에서 교환되는 담론의 주제들은, 본질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non-controversial), 무비판지향적인 것(non-critical), 공적이지 않는 것(non-public)에 국한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들은 그 영역 안에서 숙의, 즉 토론하거나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놀고, 취하며, 망각하고자 한다.

각종의 모임과 공간들과 채팅방, 성인방으로 구성되는 제3커뮤니케이션 영역이 고독한 영혼들을 위한 휴식과 소통의 매개 창구로서 일정한 복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제3영역의 커뮤니케이션적 기능은 여전히 부분적이며 불충분한 것에 머무르고 있다. 그 영역 안에서 획득되는 자기 정체성과 자기 존중감, 사회적 인정은 여전히 불완전한 것에 머무른다. 그 영역은 개인으로도 보호되지 않고 사회 공동체로부터도 포용되지 못한 한국의 성인들, 개인성의 미발달에 의하여 '고독(solitude)'을 수용할 수 있도록 훈련되지 않은 한국의 성인들이 자신들의 외로운 영혼을 달래기 위하여 개설한 임시방편적인 휴식과 도피의 골방이다. 그들은 '직장'이라는 '사회'로부터 나와 다시금 '모임'이라는 '유사 사회' 속으로 다시 편입된다. 한국인들은 고독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업무가 끝나면 각자 개인성의 영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여 제3영역으로 들어간다. 그 영역은 공공성을 띠는 공동체적 영역, 즉 숙의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철저한 사적 영역이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비록 제3영역의 복지적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이 영역이 하나의 사적 영역, 그리고 개인성과 사회성의 온전한 발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심층적이며 실존적인 인간 커뮤니케이션 의지와 에너지를 포획, 잠식하는 소비적 영역의 성격을 넘어서서, 하나의 참된 공동체적 공공 영역 또는 숙의의 영역으로 재조직되고 개인성과 사회성의 영역들의 참된 발전을 매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2. '다이얼렉틱' (Dialectic)과 '로고스' (Logos)의 죽음

'공적 영역'의 성립을 위한 세 번째 조건, 즉 '이성적-비판적 토론'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할 때에도 한국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는 심각한 취약성을 노정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에서 일상적으로 관찰되는 특징은 커뮤니케이션의 총량은 매우 높은 발전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이성적, 합리적, 비판적 토론의 문화는 매우 저급한 발전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를 활성화된 '숙의'와 '민주주의'의 장으로 격상시키는 과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논의의 철학적 준거로서 Plato(1989)의 대화(dialogue) 개념과 Aristotle(1991)의 수사학(rhetoric) 개념에서 중요한 시사를 얻을 수 있다. Plato의 저작(특히 *Gorgias*와 *Phaedrus* 참조)에 나타나는 인간 커뮤니케이션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진리를 추구하기 위한 '다이얼렉틱'(dialectic)이며, 다른 하나는 설득의 수단으로서의 '레토릭'(rhetoric)이다. Plato는 전자는 이성적 논리적인 추론에 의존하여 사물들의 존재와 관계 방식을 궁극적으로 추적해 들어갈 수 있는 철학적 토론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인 반면, 후자는 오히려 사물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적 특성들을 감추는 기능을 수행하는 일종의 테크닉 또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보았다(Kahn 1996). 바로 이러한 이유로 Plato는 레토릭을 불신하고 그 번성을 경계한 바 있다. Aristotle은 이와는 달리 하나의 설득술로서의 레토릭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것의 이론화를 추구하였다. 그는 설득을 위한 수단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것들은 첫째, '로고스'(logos), 즉 말해지는 주장 자체의 내용적 진실성에 호소하는 방법, 둘째, '에토스'(ethos), 즉 화자의 개인적 특성에 관련하여 호소하는 방법, 셋째, '파토스'(pathos), 즉 청자의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이다.

Plato와 Aristotle의 이러한 기초적 개념적 범주들을 기준으로 오늘날 한국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를 조망하면, 그 영역에서 '다이얼렉틱'과 '로고스'는 쇠잔하고, '레토릭'과 '에토스' '파토스'만이 과잉 발전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이며, 철학적 커뮤니케이션들은 미 발달하거나 모습을 감추고, 단순한 소비적 말재주가 범람하고 있다. 숙의와 민주

주의의 영역으로 한국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가 격상되고 재조직되기 위해서는 그 영역이 이성적(rational), 비판적(critical), 공적(public), 주제 중심적(thematic), 성찰적(reflexive), 생산적(productive), 토론 지향적(discussion-oriented) 커뮤니케이션으로 충만하고 이에 의하여 지도되는 것이 요구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속의 한국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는 이러한 기준과는 달리 감정적(emotional), 무비판적(non-critical), 사적(private), 일화 중심적(episodic), 마취적(narcotic), 소비적(consumptive), 오락 지향적(entertainment-oriented) 커뮤니케이션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물론 인간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복잡적이며 다층적인 것이며, 따라서 어떤 한 가지 차원이나 종류의 커뮤니케이션만이 항상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령,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건강성을 위해서는 '이성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감정적'인 것도 중요하며, '토론'도 필요하지만 '오락'도 버릴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강력하게 대두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설명해야만 할 중요한 문제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맥락 속에서 이들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두 차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배열되고, 조직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험적 관찰에 의하면 한국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는 한편으로는 후자 차원이 과도할 정도로 비대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전자 차원은 심각할 정도로 위축되고 미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기반 형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반복하여 지적하지만 한국 사회에 결코 커뮤니케이션 영역 자체가 미발달한 것은 아니다. 한국은 지나칠 정도로 '회의'와 '위원회'가 많은 사회로 알려져 있다. 또한 수많은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비록 공식적인 '회의'에서도 비판 합리적 토론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활성화된 '회의'는 참여 주체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과 찬반토론을 통하여 집합적 의견을 창출하는 의사결정의 장이 아니라, 이미 관료적으로 완료된 의사결정 내용을 사후적으로 추인받기 위한 '전략적 의례'(strategic ritual)의 모임일 경우가 많다. 한국의 전형적 회의 모습은 다이얼렉틱과 로고스에 의하여 주도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영역이 아니라 온갖 레토릭과 에토스와 파토스에 의하여 지배되는 관료적 통제의 영역에 가깝다. 그 영역은 논리와 이성과 비판의 커뮤니케이션 영역이 아니라 가능한 한 잠재적 갈등 소지가 많은 쟁점들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도록 사전에 암묵적으

로 동의된 영역인 경우가 많다. '회의'는 많아도 '토론'은 부족하며, '비판'은 없이 '추인'만 많은 것이 한국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인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회의에서 오고가는 참여자들 사이의 메시지의 교환은 그 본질상 양방향성을 전제로 하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일종의 '커뮤니케'(communiqué)에 가깝다. 그 안에서 참여자에게 말할 권리는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채, 들어야만 할 의무만 부과되는 양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고 결정적인 의제들은 '회의'와 같은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부문에 상정되기 이전에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부문에 의하여 미리 그것들에 관한 의사 결정이 종료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회의와 같은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만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서의 갖가지 모임에서도 참여자들은 될 수 있으면 잠재적으로 의견 대립 가능성이 높은 주제에 관해서는 서로 말을 꺼내려 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그들이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에 참여하는 동기는 일반적으로 토론을 중심으로 삼는 합리적, 비판적 소통의 추구에 있지 아니하고, 그 반대로 망각과 휴식을 위한 오락의 추구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종의 만남과 모임의 공간에서 참여자들이 선택하는 커뮤니케이션 주제들은 일반적으로 '엔돌핀 나오는 소리' 즉 기분 좋은 이야기에 국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는 농담을 잘하는 사람, 남을 잘 웃길 줄 아는 사람의 인기와 상품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공적 쟁점을 자주 제기하는 사람, 논리적 토론을 좋아하는 사람은, 재미없는 사람, 지나치게 심각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각종의 모임에서 인기를 누리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에 의하여 한국 사회에는 수 없이 많은 장르의 '유머'와 'Y담'이 발달하고 있다.

한국에서 출세하기 위해서는 술을 잘 마셔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도 한국 사회의 여러 종류의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합리적, 이성적 토론의 문화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감정적, 망각 지향적, 오락 지향적, 소비적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발달하고 있는 상황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근대성은 곧 개인성의 고도화, 즉 주체적 '의견'의 형성능력과 표현능력에 의하여 측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이와 반대로 많은 경우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능력'(ability not to express opinions)이 보다 중요한 경우가 많다. 특정한 사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크다고 인식되는 상황이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주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표명하는 사람들은 '튀는' 사람 또는 '모난' 사람으로 인식되고, 그 결과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에서 환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도 한국의 근대화 과정이 외양적, 지표적 관점에서는 놀라운 성공을 가져 왔으면서도 사회의 실제적 근대화를 결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후군들로 파악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는 이성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전제로 하는 비판 합리적 토론 문화의 정착이라는 근대성의 핵심 요인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V. 결 론

근대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이다. 근대는 인간과 사회를 커뮤니케이션적으로 재조직하는 문명사적 프로젝트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과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의 조직 방식을 관련지어 분석하는 일은 한국 커뮤니케이션학의 기본 과제에 해당한다.

한국 사회의 근대화는 여전히 하나의 미완성의 프로젝트로 남아 있다. 커뮤니케이션 자원의 확충과는 별개로 한국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는 아직까지 비판 합리적 토론이라 하는 숙의와 민주주의의 초석을 튼튼히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21세기의 우리에게 주어진 실천적 과제는 비판 합리적 토론 문화와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사회적 제도들을 시급하게 확충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제의 완성을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 충만하고 있는 불신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와 같은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생산적이며 창조적인 에너지, 즉, 보다 나은 사회를 향한 꿈으로 전환시키고 재조직해 낼 수 있는 통로의 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근대화 과정에서 건강한 소통을 위한 심리적 토대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분노와 절망과 불신의 에너지를 다시금 상호신뢰와 희망의 에너지로 재처리하는 일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또한 '개인'과 '사회'의 부양을 위하여 한국 사회의 각종의 커뮤니케이션 자원, 공간, 수단들을 재분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제3

커뮤니케이션 영역'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극복하고 이곳에서 소진되고 있는 에너지를 건강한 '개인성'과 '시민성'의 부양을 위한 창조적 힘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개인적 주체성과 열린 안목, 참여 정신과 비판 합리적 토론 능력을 가진 시민들을 양성하고 부양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이러한 과제들은 조국의 분단체제 극복과 민족통일의 과제, 그리고 자유와 정의와 원칙이 지켜지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사회의 건설을 지향하는 다면적인 사회 개혁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승관. 1993. "한국사회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의 붕괴." 『언론정보연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제30집. 85-122.
- 박승관. 1994. 『드러난 얼굴과 보이지 않는 손: 한국사회의 커뮤니케이션 구조』. 서울: 전예원.
- 박승관. 1996. "한국사회와 커뮤니케이션 엔도가미." 『한국언론학보』 제36호. 5-71.
- 박승관. 2000. "숙의 민주주의와 시민성의 의미." 『한국언론학보』 제45-1호. 162-194.
- 박승관·장경섭. 2001. "한국 사회의 이중적 법질서와 언론 권력의 관계." 『한국사회학』. 제35집 2호. 91-114.
- 임종철 등. 1994. 『한국사회의 비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Arendt, H. 1958. *The Human Condition*.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ristotle, 1991. *On Rhetoric: A Theory of Civic Discourse*. (Trans. G. A. Kenned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Bohman, J. 1996. *Public Deliberation: Pluralism, Complexity, and Democracy*. Cambridge, MA: The MIT Press.
- Dewey, J. 1927. *The Public and Its Problems*. Chicago, IL: The Swallow Press.
- Dewey, J. 1958. *Experience and Nature*. New York, NY: Dover Publications.
- Dryzek, J.S. 1990. *Discursive Democracy: Politics, Policy, and Political Science*.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shkin, J.S. 1991. *Democracy and Deliberation: New Directions for Democratic Reform*.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Fishkin, J.S. 1995. *The Voice of the People: Public Opinion and Democracy*.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Gastil, J. and J.P. Dillard. 1999. *Increasing Political Sophistication through Public Deliber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16(1), 3-23.
- Guttman, A. and D. Thompson, 1996. *Democracy and Disagree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abermas, J. 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1. (Trans. T. McCarthy). Boston, MA: Beacon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81.

- Habermas, J. 1989.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Trans. T. Burger). Cambridge, MA: The MIT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62.
- Habermas, J. 1998. *The Inclusion of the Other: Studies in Political Theory*. (C. Cronin and P. De Greiff, Ed.). Cambridge, MA: The MIT Press.
- Heelas, P., S. Lash, and P. Morris. 1996. *Detraditionalization: Critical Reflections on Authority and Identity*. Cambridge, MA: Blackwell Publishers.
- Im, H.B. 1987. "The Rise of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in South Korea," *World Politics*, 39, 231-257.
- Inkeles, A. 1999. A Model of the Modern Man. In M. Waters (Ed.), *Modernity: Critical Concepts* Vol. 2 (pp. 94-109). New York, NY: Routledge. Original work published 1973.
- Inkeles, A., & D. H. Smith. 1974. *Becoming Modern: Individual Change in Six Developing Countri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Jaspers, K. 1970. *Philosophy*. Vol. 2.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aspers, K. 1997. *Reason and Existenz*. Milwaukee: Marquette University Press. Originally published 1995.
- Kahn, C. H. 1996. *Plato and Socratic Dialogue: The Philosophical Use of a Literary For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nt, I. 1996. "An Answer to the Question: What is Enlightenment," In I. Kant, *Practical Philosophy* (M.J. Gregor, Trans. & Ed.).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784.
- Kant, I. 1997. *Critique of Pure Reason* (P. Guyer, Trans. & Ed.).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781.
- Kim, J., R.O. Wyatt, & E. Katz. 1999. "News, Talk, Opinion, Participation: The Part Played by Conversation in Deliberative Democracy," *Political Communication*, 16, 361-385.
- Lerner, D. 1958. *The Passing of Traditional Society: Modernizing the Middle East*. New York, NY: The Free Press.
- Mill, J. S. 1975. *On Liberty* (D. Spitz, Ed.). New York, NY: Norton. Original work published 1859.
- Milton, J. 1992. *Areopagitica*. Santa Barbara, CA: Bandanna 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1644.
- O'Donnell, G. 1973. *Modernization and Bureaucratic-Authoritarianism*. Berkeley, C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 O'Donnell, G. 1988.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Argentina, 1966-1973 in Comparative Perspectiv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age, B.I. 1996. *Who Deliberates? Mass Media in Modern Democrac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lato. 1989. *The Collected Dialogues of Plato including the Letters*. (E. Hamilton, & H. Cairns, E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ocqueville, A. 2000. *Democracy in America*. (Trans. H. C. Mansfield, & D. Winthrop).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840.
- Wyatt, Katz, and Kim. 2000. "Bridging the Spheres: Political and Personal Conversation in Public and Private Spaces." *Journal of Communication*, 50, pp. 71-92.
- Yankelovich, D. 1991. *Coming to Public Judgment: Making Democracy Work in a Complex World*. Syracuse, NY: Syracuse University Press.

ABSTRACT

Distortions of the Social Communication-World during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Korean Society

Park, Sung Gwan |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the theoretical question as to the distortions of the social communication-world, as a pivotal axis of the social life-world, brought about by the process of “condensed modernization” of Korean society during the last half of the 20th century. Analysis will be focused on some key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communication-world which seem to have been internalized in Korean society during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To this end, it will be discussed that “the modern society” was, more than anything else, a newly established communicative order supported by free and critical-rational debates that facilitated the emergence of the existential individual and a deliberative democracy. It will be argued that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Korean society has led to the distortions of the social communication-world in various forms of pathologies in existential communication and the debasement of deliberative democracy.